

영화광 아버지의 첫 칭찬 “이제야 영화답네”

영화 ‘도둑들’ 감독 최동훈

하루 영화만 만드나 타박하던 아버지 ‘본격적이다’ 첫 호평 듣고 흥행 예감

한국영화 6번째 1000만 관객 초입기 2년 반 단위 인생...차기작은 경찰극

흥행에 가속이 붙었고 영화계는 1000만 영화가 탄생할 거라며 들떠 있다. 축하한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쇄도한다.

네 번째 연출작 ‘도둑들’이 1000만 관객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지만 정작 연출자 최동훈(41) 감독은 “명하다”고 했다. 숫자의 압박 탓인지 이전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눈치다.

700만 명을 넘을 때쯤 1박2일 동안 제주도에서 “머리를 식히고 왔다”는 최 감독은 “1000만이 된다? 그냥 씨~익 웃고 잊어야지 뭐...”라며 담담하게 웃었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로 여러 상을 받았지만 “트로피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었다”는 말도 했다. “히죽히죽 웃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을에서다.

“스트레스는 제 친구거든요.”(웃음)

●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호평’ 받은 영화

최동훈 감독이 ‘도둑들’의 흥행을 체감한 건 ‘어른들’의 반응을 접한 뒤다.

“영화광 아버지는 ‘본격적이다’고 하셨다. 영화답다는 의미였다. 아버지는 무뎠던 영화관 ‘나바론요새’나 ‘대탈출’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넌 왜 화두치는 그런 영화만 만드냐’고 하셨는데.(웃음) 70대인 장모님도 세 번이나 보셨고.”

최 감독에게 ‘도둑들’은 “재미있게 찍은 영화”이자 “새로운 경험”이었다.

“딱 떨어지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도둑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넘어 정서적인 측면, 그러니까 뉘앙스나 매혹, 연민 같은 분위기를 내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느꼈다.”

김윤석·김혜수·전지현·이정재 등 배우들과 만든 시너지는 ‘도둑들’이 관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선 원동력. 배우들은 약속한 듯 “최동훈이니까 참여했다”는 말을 꺼냈다. 대제 스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은 뭘까.

“하하! 함께 고민하는 편이고 촬영 땀 무조건 즐겁게 하자는 주이다. 영화는 거친

요동이다. 집에 갈 때 누구나 ‘오늘 뭔가 한 것 같다’고 생각하길 원했다. 매일매일.”

그의 연출작에 모두 출연한 김윤석과 ‘타짜’에 이어 함께 한 김혜수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에게 김윤석은 “리 마빈이고 스티븐 매퀸”이다. “제가 생각하는 배우란 바로 그 사람. 멋있다. 모든 할 수 있는 배우. 2001년 즈음, 연극을 보러 갔다 코미디 연기를 하는 김윤석을 처음 보고 너무 웃겨 ‘나중에 연출 데뷔하면 저 배우랑 꼭 해야지’ 했다. 사실 (조)승우 보러 갔던 건데.”(웃음)

그렇다면 김혜수는. “출연까지 가장 망설였다. 이후 만약 TV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아주 좋은 캐릭터로 기억될 거다.”

● “매일 밤에서 일하는 농부처럼”

2004년 ‘범죄의 재구성’(210만)으로 시작해 2006년 ‘타짜’(680만), 2009년 ‘전우치’(610만)까지 연속 흥행을 이룬 최동훈 감독은 편수가 늘어도 “매일 밤에서 일하는 농부처럼 살자”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도둑들’ 제작자인 안수현 프로듀서와 부부여서 “집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도 했다.

“아내에게 해매고 버벅거리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난 아내에게 100을 다 얘기한다. 음... 아내가 되게 똑똑하다. (웃음) 지적을 많이 받아도 저는 절대 방어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지적이 가슴에 탁 and 닿을 때가 있다. 그럼 ‘그만 합시다’ 하고 돌아와 열심히 (시나리오)쓴다.”

최 감독은 아내 얘기를 하다 고교 교과서에 나오는 유교 수양법이라며 “신독”이란 단어를 꺼냈다. “방 안에서도 누가 보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몸가짐 방법인데 집에서 늘 신독을 한다.”(웃음)

‘도둑들’은 이르면 13일째 1000만 관객을 넘어선다. 한국영화로는 여섯 번째. “2년 반 단위로 살고 있다”는 최 감독은 “다음 작품은 2년 반 동안 열정을 갖고 매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물론 머릿속에서 구상은 끝났다. 경찰 이야기. “경찰을 다뤄 보고 싶다고 했다 일파만파 커져서 반드시 경찰 이야기를 해야 할 것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영화 스태프로 참여해 밤을 새 날, ‘오케이! 나는 취직 안 한다’ 결정했다. 사실 그때 IMF라 취직도 어려웠지만.(웃음) 점점 더 어려운데 점점 더 재미있다. 어찌 보면 저도 워커홀릭이다.”

이해리 기자 god1024@donga.com 트위터 @madeinharry



영화 ‘도둑들’의 1000만 관객 돌파가 눈앞에 보인다. 쏟아지는 흥행 축하 메시지에 연출자 최동훈 감독은 “명하다”며 담담하게 웃었다.

편집 | 고창원 기자 kcc@donga.com 트위터 @mkh237

ON AIR 채널A 10일 밤11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냉면 육수의 비법, 알고보니 조미료?



냉면 육수가 조미료만으로 만들어졌다는 제보에 제작진이 이를 파헤치기 위해 실험에 나섰다. 사진제공 | 채널A

무더운 날씨에 생각나는 시원한 냉면. 하지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냉면 육수가 조미료 물이라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제작진은 냉면 육수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제보자는 본인이 계약하던 유명 프랜차이즈 냉면 전문점의 육수가 조미료만을 넣고 끓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취재 결과 조미료 육수 ‘비법’은 일부 업주들 사이에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거래되던 관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미료만으로 만들어지는 냉면 육수의 충격적인 진실과 비위생적인 제조 현장을 10일 밤 11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이 고발한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인기클리크 베스트 3

자료: 네이버

연예	양현석 ‘싸이-타블로 YG엔터는 아내들 덕분’ ‘왕따살’ 티아라 효민, 논란 후 첫 공식식상 엄지인 아나 ‘글적글적’...KBS 태권도 중계 방송사고
스포츠	“한국, 금 6개 딸 것”...스포츠 도박사들 ‘망신’ 외신 “한일전, 결승전보다 재미있을 것” 이게 ‘부상투혼’, 이대훈은 이미 코백가 부러져 있었다
사회	남한강 ‘녹조 실종’ 왜 그럴까...해석 분분 대법 “발기부전 고통자 성폭행 인정 어렵다” “성기 절까지 봤는데” 미성년 성폭행 혐의 70대 무죄
경제	엄마가 적금 모아 산 집, 난 꿈도 못꾸요 양학선, 후원금 공년... 이번엔 ‘LG서 5억 원’ ‘과거 병력’ 설계사에 구두로만 알렸다면 보험금 못받아
생활 문화	2년 만에 손봤다...현대차, ‘2013년형 아반떼’ 출시 멀리서 본 소나기, 자연이란 역시...‘너무 신기해’ ‘강남스타일’ 뜨니 국립국악원이 한숨...왜?

인기 동영상

날렵한 심판



공연 랭킹

8월 3일~8월 9일 자료:인터파크

1위 공연 정보보기

순위	공연명	주연
1	뮤지컬 <잭더리퍼>	안재욱·신성우
2	EBS 모여라 똥동맹 <변개명의 비밀>	-
3	뮤지컬 시카고	인순이·윤공주
4	뮤지컬 위키드 오리지널 내한공연	-
5	뮤지컬 라키지	정성화·남경주

2013년형 名品 초소형 시계캠코더 출시!

삼성, 8GB 최고화질·방송·동작 감지 기능
촬영소리가 없이 사진 30,000장, 동영상 촬영·동시 녹음

직업상 비밀녹화, 녹음이 필요한 사람이나 정부의 포상금제도로 인하여 환경오염, 선거운동, 쓰레기 무단 투기, 폐소각현장 등 각종 불법사례를 은밀히 촬영하는 제보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월24,000원

주)오성코리아에서는 최신형 스파이시계를 선보였다. 열철 보기에는 엉악없이 보통 손목시계지만 녹음은 기본,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사진은 무려 30,000장을 촬영 보관할 수 있다.

소지한 사람들은 5만~10만 원까지 현금보상을 받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AS발생시 1년무상 신제품으로 교환해준다. 고성능 USB케이블, 차량용 충전기, 가정용 충전기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

24시간상담전화
02-522-7466

아름다운 여자 “티나”(teena)

중소기업
직영광고



그대가 보고싶다

size: 160cm

독신남성...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남성분들에게는

아내 같은 여자 “티나”

젊은 출장,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자,

선박업 승무자, 외국인 근로사업장,

기러기 가족 등 기타 선물용

킴스포츠(kim's sports)의 작품 “티나”는 얼굴이 예쁘고 내구성 강한 1등급 재료만 사용하므로 가격보다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는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공기주입형 방식의 최신형 최고급 명품입니다.

“티나” 제품은 구매전에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인테리어”으로 상품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에 본사 직원을 통하여 구입하면 됩니다.

제품보러가기→ <http://킴스포츠.한국>

인터넷상단 주소창에 한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빅 사이즈 인체모형 전문제작사

킴스포츠(kim's sports)

제품문의 010-3500-5324, (02) 423-0020

킴 스포츠는 허가받은 일반제조업체입니다.

농협 : 301-0010-8133-01 김학경 (대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20607-증-27996

트루맨 남성의원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 평창형/굴곡형
원터치 약물주입요법

✓ 귀두/음경확대	✓ 조루/길이
✓ 바세린/만곡증	✓ 남성지방흡입 (복부/여성형 유방)
✓ 포경/정관	



왕십리점 02-2297-9616 서울 성동구 도선동 46 골짜기빌딩 2층 (2호선/5호선 왕십리역 1번출구)	강남점 02-557-55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2 삼성빌딩 3층 (2호선 선릉역 10번출구)	명동점 02-318-7571 서울 중구 남산동 171-2번지 영명빌딩 5층 (4호선 명동역 3번출구)	부천점 032-323-8575 부천시 원미구 신동 335-9 시그마타워 4층 (호선 송내역 2번출구)	분당점 031-704-75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00-9번지 메트로빌딩 7층 (분당선 아람역 1번출구)	부산점 051-817-8526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88-9 85메디칼빌딩 2층 (서면역 9번출구)
--	---	--	--	--	---

www.trueman75.co.kr

트루맨

대표번호

1577-5095

비뇨기과 원 맨남성의원

진료 내용 남성의학클리닉

조루 대표 전화 1577-7574

레이저포경수술 / 성병종합검진
길이연장 / 바세린제거술
음경만곡증 / 정관수술

강남남사역 02-592-2220	일산 031-932-7933
신사역 5번출구 K타워 5층 02-963-2182	백석역 1번출구 032-439-0007
노원역 8번출구 02-3439-7582	인천역 2번출구 신세계백화점 032-657-0008
신도림역 1번출구 02-477-3477	부천역 대성병원 031-421-6119
천호역 02-477-3477	안양 평촌 031-255-7582
천호역8번출구 브라운스톤천호 031-255-7582	수원역 2,3번 출구 031-413-3555
	안산 041-563-0808
	천안 아산 042-484-7373
	광주광역시 062-351-7582
	신규 역 백화점 사거리 061-721-2555
	여수 순천 053-743-0075
	대구MBC 건너편 054-231-7001
	상원동 스타타워상가 302호 052-227-7332
	울산 051-803-7533
	서면역 1번출구 (구)천우당 4층 055-256-0303
	창원 마산 055-256-0303
	마산합성동 시위메스티빌딩 1층 055-256-0303

www.manclinic.co.kr